

## 르네사스,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공장 매각

일본의 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가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조직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음. 일본 기업들이 산업재편 움직임은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대비책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
### □ 르네사스 아오모리 ‘마이콘’ 공장 매각

- 르네사스는 자동차 제어용 반도체인 ‘마이콘’을 생산하는 쓰가루공장(아오모리현)을 후지전기(富士電機)에 매각
  - 르네사스는 사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‘12년 3월기에 570억엔의 적자가 발생, 10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반도체공장을 집중시켜,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개선할 계획
    - \* 르네사스가 국내의 마이콘 공장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富士電機에게 7월까지 매각 예정
    - \* 매각액은 약 5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종업원은(약500~600명) 원칙적으로 富士電機가 승계할 방침
  - 후지전기는 쓰가루공장을 인수,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
    - \* 수요가 확산되는 에코 카용 제품을 생산
    - \* 후지전기는 파워반도체분야에서 미쓰비시전기, 독일 인피니온에 이어 점유율 3위. 13년까지 세계 2위를 목표

## 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조직재편 가속

- 르네사스는 급격한 엔고,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작년부터 조직재편을 검토해왔으나, 금년 3월, 실적이 악화되어 △前공정을 해외로 이전, △국내공장 매각 등 조직재편을 가속화하기 시작

- 반도체는 인건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제조前공정은 국내에서만 생산해 왔으나, 급격한 엔고,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생산체제를 재검토

- \* 르네사스의 前공정은 국내 10거점, 해외 1거점이 있으나, 일본에서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음. 향후 시스템LSI의 생산에서 철수하고, 해외 수탁생산을 늘릴 방침

- 르네사스는 쓰가루 공장을 시작으로 생산규모가 작은 공장은 재편에 착수할 방침

- \* 나카(那珂)공장(이바라키현), 구마모토(熊本)공장(구마모토시)에 생산을 집중시켜,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

- \* 집약한 공장 간에서 필요에 따라, 마이콘을 대체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진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

### 르네사스의 반도체제조공장



- 르네사스 아카오 야스시 사장은 “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질을 목표로 사업·생산구조 대책을 추진하겠다” 면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음

\* 前공정은 웨이퍼 대구경화와 첨단프로세스의 해외위탁생산을 확대

· 28nm이하 제품 전량을 위탁생산	
· 미국 로즈힐공장 8인치라인 매각	‘11년 5월
· 야마나시 고후공장 6인치라인 축소	‘11년도 6월말
· 군마 타가사키공장 5인치라인 축소	‘11년도 9월말
· 시가공장 5인치라인 집중	‘11년도말

\* 後공정은 해외자회사공장과 해외하청업자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

· 폐쇄한 후쿠오카 공장의 토지매각	‘11년 9월
· 도쿄 디바이스 본부폐쇄	‘11년도말

- 르네사스는 생산 체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마이콘 제품의 종류의 대폭 줄여 나갈 방침

\* 마이콘은 약10만 종류에 달하고, 자동차용 마이콘도 메이커별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

\*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한편, EU, 미국,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

\* 수익성이 낮은 시스템LSI를 생산하고 있는 쓰루오카공장(야마가타현)은 美 글로벌 파운드리와 매각 교섭에 착수

## □ 시사점

- 르네사스, 도시바 등 반도체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국내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후공정과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을 매각하거나 위탁생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
- 일본 반도체산업의 재편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바,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△마이콘의 일본 의존 대체, △일본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BCP전략 구축, △일본기업의 재편 기회를 활용한 M&A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## 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, “ルネサス, 青森工場売却” (2012.03.27)